

“교과서의 조선족 전통문화가 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장춘직업기술학원 응용한국어학과 학생들 조선족 민속문화 체험 활동



장춘직업기술학원 응용한국어학과에서는 한해에 한번씩 진행되는 교직원 활동월인 5월에 들어서면서 조선족 민속문화 체험 활동을 다양하게 벌였다. ‘덕을 숭상하고 아름다움을 중시하며 기술 에너지를 부여하다’를 주제로 한 활동은 전통복식 체험, 전통음식 만들기, 민속유희 즐기기, 민족례의 알기 등으로 이어지며 즐거운 장을 만들었다.

학생들은 우선 조선족 전통복장을 차려입고 조선족의 전통복식 문화를 알아보는 시간으로 조선족의 역사와 문화 내포를 느껴보았다.

인사말 나누기, 악수하고 허리 굽혀 경례하고 앞드려 큰절하기 등 레의범절을 통해 조선족의 레의문화를 료해하고 조선족의 인간관계 질서와 상호 존중하며 상호 배려하는 문화를 체험했다.

전통음식 만들기에서는 사생이 함께 떡볶이, 김밥, 비빔밥, 김치 등 조선족 전통음식을 직접 만들면서 식재료의 명칭, 제작 방법 및 약식동원의 음식문화를 알아보고 손님을 반기고 주위 사람들에 열정적인 조선족의 이미지를 느껴보았으며 현지에서 식자재를 취하고 근검절약하며 로동을 사랑하고 서로 나누며 배울 줄 아는 우량한 미덕도 감수했다.

웃놀이, 투호놀이, 사물놀이 등 민속유희를 통해서 조선족의 축제 문화를 료해하고 체험했으며 조선족의 지혜와 창조력 그리고 집단 의식과 가족관념을 느껴보기도 했다.

“오늘의 생동한 체험 활동들로 교과서에서 배운 조선족 전통문화가 살아난 듯합니다.” 왕육학생이 하는 말이다. 제우석학생은 “집에 가면 부모님께 조선족 전통음식을 만들어드려 효

도하면서 배운 것을 실제로 활용할 것”이라고 했으며 리신양학생도 “조선

족의 민속, 전통례의 등을 실천해보면서 조선족의 독특한 매력과 풍부한 내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했다.

학과 교연실 주임 염옥탁은 본 학과에서는 매 학년마다 민속문화 체험과 정 모듈을 설치하고 ‘언어훈련 + 문화 체험’의 모식으로 학생들이 직접 민속문화를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언어와 문화의 깊이있는 융합을 촉진하고 언어 표상에 내포된 문화적 함의를 리해하도록 하며 따라서 나라 사랑을 증강하고 다문화 교제 의식을 제고하도록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장춘직업기술학원 응용한국어학과에서는 문화 체험 활동을 교육모식에 융합시키는 창조적인 형식으로 활동속에서, 실천 속에서 사람을 육성하는 데 모를 박고 학생들의 전공 소양과 응용 능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 동시에 팀워크 정신 등 사상정치 원소를 융합해 리론지식을 공고히 하고 전문기능 목표를 제고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문화적으로 서로 통하고 품성과 기술을 함께 닦도록 하며 한국어를 잘 배우는 동시에 자신의 사명과 담당을 명확히 하고 중한 문화교류에 힘을 이바지하도록 하고 있다.

/ 염옥탁, 허홍



대학교 축구학원과 축구운동전공 신설 추진

최근 교육부는 료녕성 대련시에서 대학교 축구학원과 축구운동전공 건설에 관한 좌담회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습근평 총서기의 학교 축구사업에 관한 중요 지시 정신을 심도있게 관찰하고 당중앙, 국무원의 결책 포치를 전면적으로 시달하며 강렬한 사명감, 책임감, 긴박감으로 실속 있게 틀어쥐고 장기적인 노력을 들여 학교 축

구학원과 축구운동전공 건설을 추진하고 높은 수준의 종합개혁신범구 건설을 촉진하며 학교 축구 고품질 발전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학교 축구는 기본공정, 육성공정, 강국공정 및 꿈만들기 공정이라고 지적했다. 핵심요의, 전략적의의, 가치지향, 법칙특성, 작업방법 등 방면에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지

시 정신을 심도있게 학습 관찰하고 정치적 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리론성과 실천성, 통일성과 다양성, 주도성과 주체성, 현지성과 국제성, 현재와 장기성 등의 관계를 파악하고 대학 축구학원과 축구운동전공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덕성이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두드러지게 하고 사상을 지속적으로 해방하며 개혁과 혁신을 견지하고 사업 중점을 파악하며 축구문화 육성, 홍보지도 강화, 안전 최저선 수호와 주체책임을 더욱 공고히 하고 시간이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긴박감으로 학교 축구사업을 실속 있게 틀어쥐어야 한다고 밝혔다.

/ 인민넷 - 조문판

새시대 중소학교 명교원 명교장 양성계획 가동

—3년간 300명 집중 양성

교육부는 최근 통지를 발부해 새로운 한기 새시대 중소학교 명교원 명교장 양성계획(2024—2027)을 시달했다. 이는 선명한 교육리념과 성숙된 교수모식을 갖고 있고 기초교육 개혁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교육가형 교원 및 교장을 보다 많이 양성하기 위한

데 그 취지를 두고 있다.

‘양성계획’의 양성 대상은 보통 중소학교, 유치원, 특수교육학교에서 일선 교육교수와 관리 사업에 종사하는 교원과 당조 서기, 교장 및 교원발전 기구에서 교육교수 연구에 종사하고 일선 실천을 지도하는 교수연구원이 다. 올해부터 양성기지에 의거해 선발된 우수한 중소학교 교원 및 교장 300

명가량을 3년 동안에 나누어 집중 양성할 계획이다. 동시에 일부 높은 수준의 종합대학을 ‘양성계획’ 명교원 및 명교장 양성기지로 새로 증가해 양성 임무를 담당케 하는데 양성기지는 이미 루게로 32개에 달한다.

새로운 한기 ‘양성계획’은 명교원 명교장 작업실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명교원 명교장 양성과 인도 견인 기제를

모색해 지역내 교원 교장 대오의 자질 이 전반적으로 제고되도록 이끌게 된다. 동시에 교육부측 임무를 담당하는 것을 양성의 중요한 내용으로 삼고 국가 향촌진흥 중점부축현에 실천점을 설립하며 학교 주재 교육지원, 온라인 련합교육연구, 과제공동연구 등 방식을 통해 정확한 부축기제를 구축하게 된다.

/ 인민넷 - 조문판

‘세계 차(茶)의 날’ 맞아 학생들 다예 체험

제5회 ‘세계 차(茶)의 날’인 21일, 우리 나라 각지에서는 차 문화 및 지식을 홍보하고 보급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사진은 이날 하북성 석가장시제10고급중학교 학생들이 교내에서 다예를 체험하고 있는 장면.

/ 신화넷

올해 연변 대학입시 수험생 8,736명

전해보다 445명 증가, 조선어 수험생 1,503명

연변조선족자치주교육국에 따르면 2024년 연변 일반대학교 학생모집시험에 총 8,736명의 수험생이 신청해 작년보다 445명 증가했다. 그중 일반 수험생은 7,233명이 고 조선어로 시험을 보는 수험생은 1,503명에 달한다.

연변에는 도합 8개 시험구, 11

개 시험장 설치장소(연길 3개, 훈춘 2개, 도문 1개, 돈화 1개, 룡정 1개, 화룡 1개, 양청 1개, 안도 1개), 331개 시험장을 설치한다. 이 밖에 8개 예비시험장 설치장소, 33개 예비시험장이 준비된다.

/ 본사기자

시험 시즌 도래

수험생을 둔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

시험 시즌이 다가오면서 수험생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부모들은 아이들이 시험 시즌을 잘 보낼 수 있도록 무엇을 해야 할까?

1. 자신의 감정을 관리해야 한다. 부모는 우선 평정하고 평화로운 태도를 유지해야 하며 자신의 불안감을 수험생에게 전달하지 말아야 한다. 학부모의 정서적 안정과 적극적인 태도는 수험생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2. 수험생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좋은 의사소통 및 신뢰관계를 구축하며 아이의 생각과 감수를 경청하고 심리적 지원과 격려를 주어야 한다. 부모는 진정으로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하며 행동으로 수험생을 지지해야 한다.

3. 수험생에게 조용하고 깔끔하며 편안한 학습환경을 마련해주고 간섭하거나 시끄러움을 끼치지 않음으로써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 동시에 부모는 수험생이 합리적인 학습계획을 세우고 시간과 복습 내용을 잘 분배하도록 도와주어 불안감을 줄이도록 해야 한다.

4. 부모는 수험생의 학습과 휴식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수험생이 좋은 생활 리듬을 유지하고 적절한 휴식을 취하며 과로를 피하도록 도와야 한다. 부모는 또한 수험생이 시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도록 적절한 운동이나 이완 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지할 수 있다.

5. 발생가능한 실패를 받아들이 준비를 해야 한다. 부모는 자녀의 실패를 받아들이고 과도한 스트레스와 비난을 하지 말아야 한다. 실패와 불안벽함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야만이 수험생이 도전에 대처하고 자아를 초월하며 올바른 학습태도와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다.

/ 인민넷 - 조문판

5월, ‘전국 학생심리건강 선전교육의 달’로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부터 5월을 ‘전국 학생심리건강 선전교육의 달’로 확정하고 다양한 형식의 선전교육 활동을 통해 랑

호한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사생과 학부모들의 심리건강지식 수준과 소양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했다.

/ 인민넷 - 조문판

아이 심리문제

어떻게 식별하고 대응해야 할까?

최근 몇년 동안 학생들의 성장 환경이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학생 심리건강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5월을 ‘전국 학생심리건강 선전교육의 달’로 정했다.

“학생들의 정서파동 빈도와 긍정적, 부정적 영향이 심리건강 여부의 참고자료이다.” 심수시소아병원 심리치료사인 진초여는 취재에서 이렇게 말하며 부모, 교사 또는 친구는 학생의 정서적 안정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감정표현 및 정서조절의 어려움을 제때에 발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모는 평소 아이의 변화를 주의깊게 관찰해야 한다. 예를 들면 수면이 불규칙적인지, 불면증은 없는지, 혹은 자주 깨지는 않는지, 식습관이 변하지 않았는지, 전에 좋아하던 것에 흥미를 잃지 않았는지, 과식하지 않는지, 학업에 대한 자신감을 잃지 않았는지, 더 이상 적극적으로 수업을 완수하지 않고 대인관계에서 더 이상 진한 친구와 연락하지 않으며 외출하기 꺼려하지 않는지 등을 관찰해야 한다.

또한 일부 아이들의 심리문제는 현기증, 두통, 복통, 가슴 답답함, 시력 이상 등 신체적 불편함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런 경우 만약 전문 3갑 병원에서 기질적 병변이 발견되지 않으면 부모는 아이가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아이의 정서나 행동이 주변 사

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거나 고통을 준다면 이는 아이의 심리적인 문제거나 인격적인 문제일 수 있다.” 진초여는 부모는 아래의 세가지 방면으로 자녀가 자신의 심리적인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첫째는 경청하고 진지하게 소통해야 한다. 아이의 외부행동을 부정하거나 비판하는 데 서두르지 말고 아이가 자기 행동 뒤면에 내재된 요구와 혼란을 분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아이가 부모의 인도를 따를 때 부모가 자신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것은 아이가 긍정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된다.

둘째는 량호한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고 아이가 스스로 조절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좋은 부모-자녀 관계는 아이가 학업과 대인관계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사물을 올바르게 보는 데 도움이 되고 아이가 더 용감하게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돕는다. 부모는 자녀와 함께 예술활동 또는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는 자녀의 내분비 조절 및 정서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

셋째는 중대한 문제와 충돌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 부모는 항상 자녀와 존중하고 평등하며 열린 자세로 소통해야 한다. 받아들일 수 없는 원칙적인 문제에 대해서 부모는 아이와 일치할 볼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합의를 보아야 한다.

/ 인민넷 - 조문판